

## 오륙도 글밭



강 석 환

부산관광협회 부회장  
위트컴협회장재단 이사

세계 최고의 개별여행 전문잡지 '론리플래닛'은 부산을 올해 2018년 아시아에서 가보아야 할 베스트 여행지 1위로 선정할 바가 있다. 글로벌시대인 요즘은 항공편이 발달하다보니 국경너머 어디라도 쉽게 오갈수가 있고 또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관광객 스스로가 찾아 다니는 그야말로 개별관광의 시대가 되고 있다. 여행객들은 많이 알려진 유명 관광지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의 스토리나 맛집 등을 찾아서 여행하는 패턴이 매우 강해진 것이다.

## 살아가는 행복 일깨워준 '금일봉'

### ■독자의 칭찬편지

대연6동에서 문현동으로 넘어가는 언덕바지에 작은 통일동산이 있습니다. 정상에 팔각정과 체육시설이 있어 아침이면 많은 주민들이 체력단련을 위해 찾고 있습니다. 그곳에 배드민턴 구장도 있어 우리 동호인들이 합친 활화와 열띤 응원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7일 태풍 콩레이로 인해 배드민턴 구장 한 코트가 완파되고 나머지는 반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튿날 회원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무너진 코트 복구에 나섰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어느날 한참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데 낯선 주민 한 사람이 우리를 유심히 보던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분이 다시 찾아와 "고생한다"며 우리들에게 격려금으

로 50만원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까. 다들 어리둥절했습니다. 알고보니 그 분은 대연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종로전기 박동천 대표였습니다. 그 분의 격려에 힘입어 20일 만에 코트 한 칸을 복구해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보름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도 주민 한 분이 산책 도중 나머지 코트를 복구하는 회원들에게 다가가 금일봉 10만원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까.

고마운 마음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진성준' 이름 석자만 알려주고 자리를 뒀습니다. 태풍에 난장판 된 배드민턴 코트를 보며 황망했는데 그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 사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면을 빌려 이 두 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재규  
(통일동산 배드민턴회 총무)

## 나트름 줄이기 살친 음식점

## 남구 건강음식점 지정업소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저감메뉴
국수와 보쌈	남구 수영로21번길29(대연동)	070-4102-8253	멸치국수, 고기국수
경호강아탕	남구 못골로78(대연동)	624-1666	어탕, 매운탕
정원돼지국밥	남구 유엔로 유엔평화로16-1(대연동)	624-6242	돼지국밥, 순대국밥
가야초차 산지국밥	남구 용호로253(용호동)	622-6123	산지국밥
동해참가자미일식	남구 유엔평화로4번길77-8(대연동)	633-0151	가자미미역국
산골다슬기탕	남구 못골로12번길39(대연동)	637-3383	다슬기탕
안장술국밥국수	남구 고동골로78번길41(문현동)	643-7233	순칼국수
한산도식당	남구 고동골로4번길15-3(문현동)	635-1177	생우렁탕
정수창국장	남구 못골로36-1(대연동)	645-0544	창국장
두메골창국장	남구 수영로205-11(대연동)	624-1955	창국장
골풀이배다귀 해장국	남구 유엔평화로29(대연동)	611-2420	배다귀해장국
통통김밥	남구 유엔평화로11(대연동)	622-2234	우동
산마루	남구 수영로268번길6(대연동)	627-5285	우거지탕
밀양돼지국밥	남구 용호로236-1(용호동)	622-2033	돼지국밥
전주남문토종순대국(대연점)	유엔평화로4번길45(대연동)	628-2842	순대국
오빠나 멸치국수	수영로185(대연동)	636-1110	멸치국수
힐재돼지국밥	용호로13번길29-1(대연동)	625-1014	돼지국밥
요한의 콩나물해장국	못골로16(대연동)	633-6868	콩나물우동
초원복국	황령대로492번길30(대연동)	628-3835	복국지
별만식회	자유평화로59번길71(문현동)	632-0002	대구탕
시장물 칼국수	수영로219번길26(대연동)	928-4121	칼국수
쌍둥이돼지국밥 2호점	유엔평화로35-1(대연동)	628-7020	돼지국밥
바우네나주골탕(대연유엔점)	유엔로200(대연동)	612-0845	나주골탕
해달국수	수영로274-23(대연동)	621-7900	콩국수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금년 11월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세 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 **신규 적용 부과자료**
  - 사업소득 등 : 2017년도 귀속분 ※ 2018년 6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 재산 : 2018. 6. 1. 소유 기준, 2018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에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과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보험료 조정신청**
  -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하여 드립니다.
- 문의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장

## 독자의 소리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 오륙도평화축제 시민백일장 장민화·유가현 장원

〈대학·일반부 산문〉

〈초·중·고등부 운문〉

부산 남구문인협회(회장 주순보)는 지난 10월 21일 제22회 오륙도평화축제와 연계해 실시한 시민백일장 입상자를 발표했다.

### 시민 백일장 입상자 명단

#### 〈대학·일반부〉

##### •운문

참방 김현수/  
가을에 취해 버린다  
황명숙/단풍

##### •산문

장원 장민화/가을 풍경  
차상 김윤정/절반의 가을  
차하 강은희/  
단풍으로 치유받다  
참방 민나진/가을 풍경

한주희/  
가을 풍경 맑은 엄마 모습

#### 〈초·중·고등부〉

##### •운문

장원 유가현(대명여고 2-5)/  
가을 너란, 사람  
차상 하재원(연포초 4-4)/  
가을 풍경  
차하 서화정(용문초 5-4)/  
가을 풍경

참방 김유진(오륙도초 4-2)/  
단풍의 위로  
하예진(용문초 5-3)/  
독서의 계절 가을

##### •산문

차상 김정민(용소초 4-4)/  
즐거운 가을소풍  
차하 장근술(대천초 3-3)/  
빨간 미소를 뽐내는 단풍  
참방 고다영(용문초 6-4)/단풍

## 가을 풍경

## 가을, 너란 사람

벌써 몇 해 전의 기억입니다.

저의 예명이자 태명인 '해림이'. 엄마와의 전화 통화에 "해림아, 요즘 마음이 와 이렇노." 하시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꼭 요즘 가을 풍경을 청명하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을... 이전 제 나이를 산출이 되고나니 그때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어디론가 훌쩍 가을 여행이라도 가보지 못 했던 것이 이렇게 뼈저리게 사무치네요.

우리 엄마, 정말 사랑합니다. 내 새끼 키우러니 '엄마, 나 바빠. 얼마만큼 한가지가 많아요'라며 전화를 걸어버리고는 못내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전화를 했지요. 엄마의 가을, 스산하고 예쁜 노간의 그림에 서는 멀리한 일상 대화와 내 고향 자랑거리만 이야기 하고는 또 "엄마 나 바쁘다"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던 내. 비록 글로 쓰지만 '엄마,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을을 흠모하고 느끼고 소년 감성으로 서간문도 잘 쓰며 저 해림이에게 항상 희망 메시지의 편지를 써 주시던 우리 엄마는 결국 가을에 떠나가셨습니다. 이렇듯 생전의 가을을 이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와 연분이 묻어나 펜과 글로써 마음을 전해보고 싶어서 난생 처음으로 백일장이라는 산문에 도전해 보기도 하네요.

살면서 티 없이 높고 맑고 높은

하늘만큼의 날씨를 꼭 부여놓고 싶은 마음 간절해 아찔 일찍 일어나 날씨를 체크하는 것이 요즘 일상이 되었습니다. 푹푹하기도 하고 바다 짙 내음 비슷한 나만의 가을 냄새를 영원히 맡고 싶어서 영원히기도 하고 뜨거운 커피 한 잔으로 가을을 마셔 버리기도 합니다.

더더욱 보고 싶고 그리운 엄마. 살아생전에 직접 따서 말려주시던 소국(小菊). 아직도 엄마의 향기를 을 사계절 느끼려고 한 두 개씩만 꺼내서 뜨거운 물 한 잔에 국화차로 엄마를 만나기도 하고 비가 내리면 샌티멘탈한 느낌으로 눈물도 푹푹 흘려보기도 합니다. 바깥을 내다보면 빛나무들이 성난 표정으로 감정을 색 옷으로 갈아입고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적하고 불효의 감정이 최고조로 치달을 때는 일기를 쓰곤 합니다.

영원히 가을을 잊지 못하며 엄마를 만나러 갈 때는 울금빛 단풍으로 산천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며 쓰악쓰악 갈대들의 흔들거림과 머루포도의 말로 표현 못 할 달달함과 시름함을 한 움큼 집어서 입에 털어 넣고 오물오물 씹어 먹어보고 싶어요.

가을을 마시고 가을을 입고서 가을을 먹고요 오늘도 나는 엄마한테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합니다.

대학·일반부 산문 장원

## 남구도서관 무료 영화상영

\*영화관람은 선착순 무료 입장  
☎607-6574

일자	제목	영화 정보	시간정소
12월 2일	달빛공권	전체, 애니, 더빙	
12월 9일	겨울왕국	전체, 애니, 더빙	
12월16일	이디야와 얼음왕국의 전설	전체, 애니, 더빙	
12월23일	신타의 매직크리스탈	전체, 애니, 더빙	
12월30일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전체, 자막	



## 신선대

<274>



엔기념공원에서 부인 한묘숙 여사와 영면하고 있다. 20세기 세계사와 한국의 역사를 그들 통해 읽을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평화기념관은 지난 7월부터 위트컴 장군 상설 전시관을 열었으며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는 지난해 연말 위트컴 장군실을 개관하여 교육의 장소로 삼고 있다.

남구는 지리적 여건과 함께 여러 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인해 부산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반드시 둘러보아야 할 곳으로 앞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인근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관광수요처를 곁에 둔 한국의 해양특별시 부산은 앞으로 넘치는 관광객으로 즐거운 고민을 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닌 스토리를 발굴하고 정비하여 문화관광자산으로 부각시키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라고 발언해 더 많은 한국지원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유명하다. 병원 건립 예산이 모자라 바자회를 개최하여 직접 두루마기 한복과 갓을 입고 모금활동을 하는가하면 휘하 부대원 월급의 1%를 병원 기금에 헌금토록 하였다.

그는 1954년 말 전역과 함께 아이젠하워 대통령, 밴플리트 대장 등과 함께 '한미재단'을 설립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승만대통령의 고문 역할을 하며 한국전쟁고아를 돌보는 사업에 헌신하였다. 1963년 부산출신의 한묘숙 여사와 결혼하여 한국인으로서는 새로운 삶을 열고 사회사업에 매진하며 여생을 어려운 한국민을 돕는 일에 바쳤다. 그는 1982년 7월12일 서울 용산에서 별세하였고 한국이 좋아 한국을 떠날 수 없다는 본인의 뜻에 따라 대연동 유엔요지에 안장되었다.

최고의 군수지휘자로서 또 최상의 인류애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인 그는 지금 유



##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8. 11. 23.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금호마린테크(주)	문현동	기술영업원	1명	18. 11. 22 ~ 채용시	월급 183만원	051-293-8589
신선대물류(주)	용당동	운송사무원	2명	18. 11. 21 ~ 채용시	연봉 2,400만원	051-626-0521
에이원스틸	대연동	펜스시공업	1명	18. 11. 22 ~ 채용시	시급 7,530원	051-628-7474
㈜신조건설	대연동	경리사무원	1명	18. 11. 22 ~ 채용시	연봉 1,920만원 ~ 2,100만원	051-623-3211
장원TECH.WALL	문현동	캐드 및 총무원	1명	18. 11. 22 ~ 채용시	연봉 2,200만원	051-621-8344
㈜대한이엔지	문현동	자재·구매 사무원	1명	18. 11. 21 ~ 12. 31	월급 185만원 ~ 200만원	051-633-2119 내선번호 : 203
㈜동방이엔씨	우암동	경리사무원	1명	18. 11. 20 ~ 12. 31	월급 170만원 ~ 200만원	051-754-3605
㈜우리피앤에스	대연동	건물용 방·난방설비 조작원	1명	18. 11. 21 ~ 12. 14	월급 195만원	02-3151-3885 내선번호 : 3885
엔젤엔지니어링	용당동	소음진동분야 엔지니어	1명	18. 11. 19 ~ 채용시	연봉 2,400만원	051-611-0624
㈜준요이지	감만동	인사, 노무 사무원	1명	18. 11. 20 ~ 채용시	월급 220만원	051-638-9129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 ~ 8 Fax. 607-4349

산행이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8. 12.>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삼산악회	12/9(일)	거제 당골산	010-6252-5641
	약천산악회	12/19(수)	함양 선비둘레길	010-4655-4370
	연포산악회	12/9(일)	함양 기백산	010-3832-5971
	자유산악회	12/2(일)	산형 둔황산	010-5576-8142
	금강산악회	12/2(일)	금강산	010-3865-9061
용호동	용신산악회	12/9(일)	강원도 태백산	010-4657-7051
	청산산악회	12/2(일)	익산 미륵산	010-8008-2087
	해물산악회	12/16(일)	함천 가야산	010-7154-3166
	산이출이산악회	12/23(일)	통영 벼방산	010-9329-3560
	용호산악회	12/23(일)	통령 금정산	010-6266-8525
문현동	여명산악회	12/2(일)	포항 오사들레길	010-2582-4254
	산오름회산악회	12/2(일)	용호동 이기대	010-7223-2277
	청심산악회	12/23(일)	양산 건월산	010-2736-7553
	근세기산악회	12/9(일)	정선 팔백산	010-7563-1943
	용마산악회	12/9(일)	경주 무장산	010-2692-1170
감만동	오솔길산악회	12/16(일)	순천 영무산	010-8287-1192
	우암산악회	12/2(일)	남원 구룡계곡	010-3595-5848
	문현2동산악회	12/9(일)	문경새재	010-2902-8322
	월부리산악회	12/16(일)	김천 삼도봉	010-4564-7769
	산누리산악회	12/2(일)	영역 고불봉	010-4035-3432
문사산악회	문경	선유동천	010-8466-866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